

민간주도형 사업 기업간 상생 협력

전북 생진원, 만선 영어영농조합 등 4개사와 협약

전북도와 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은 지난 25일 생진원 중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북지역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의 참여기업 간 동반성장과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상호간 협력 가능분야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이날 업무협약은 생진원 김동수 원장 및 관계자와 사업 참여기업인 만선 영어영농조합(대표 차호식)과 청맥(주)(대표 김재주), 대풍년영농조합법인(대표 서형원), (주)두손푸드(대표 구성규) 등 4개사 대표와 임원이 참석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상호간 상생 협력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 내용은 기업 간 상호협력을 위한 조정과 정보제공의 역할을 생진원에서 추진하고, 만선영어영농조합(대표 차호식)과 청맥(주)(대표 김재주), 대풍년영농조합법인(대표 서형원), (주)두손푸드(대표 구성규) 등 사업 참여기업에서는 상호간 원활한 원료공급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과 신제품 개발과 생산을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생진원에서는 전북의 '민간주도형 양커기업' 10개사의 경쟁력강화와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현황을 분석하고 참여기업 간 생산, 기술 등 분야에서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을 제안해 왔으며, 이를 통해 만선영어영농조합과 청맥(주), 대풍년영농조합 상호간 원료공급협약과 청맥(주)와 (주)두손푸드 상호간 제품생산 기술협력을 이끌어 냈



전북도와 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25일 생진원 중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북지역 민간주도형 지역기업육성사업'의 참여기업 간 동반 성장과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오늘 협약이 기업간 상생협력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내 원물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함께 생진원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딸기, 물리짐 걱정 없이 수출하세요”

농진청, 부패 20% 줄이는 이산화탄소 처리기 현장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수출용 딸기에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기존보다 신선도를 3~4일가량 연장하는 기술을 현장에 본격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딸기는 물리짐과 곰팡이 발생이 쉬운 품목으로 최근 수출 농가가 늘고 있지만, 기반 시설이 열악해 수확 후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홍콩 시범 수출 당시 적용한 이산화탄소(CO2)·이산화염소(CO2) 동시 복합 처리 기술을 기기로 구현, 수출 현장 보급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딸기에 이산화탄소를 30% 농도로 3시간 처리하면 경도(단단함)는 1.5~2배 증가한다. 여기에 이산화염소 10ppm을 30분간 함께 처리하면 곰팡이로 인한 부패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동시 처리하면, 물리짐과 부패는 15~20% 줄고 저온(2℃)에서 신선도는 3~4일간 더 연장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딸기 주산지 가운데 하나인 충남 논산지역 농협 3곳과 영농조합법인 1곳에 이산화탄소·이산화염소 동시 복합 처리기를 보급했다. 동시 복합 처리기는 딸기 수출 농가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저장고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기 하나로 2~3대의 저장고를 연결하고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 품질은 물론, 작업 효율까지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논산에 이어 3월에는 경남지역 딸기 수출 단지인 진주 지역으로 동시 복합 처리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윤표 저장유통과장은 “한국산 딸기의 이미지 향상으로 주요 수출 지역인 동남아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딸기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며 “매향, 설향 위주에서 신품종인 아리랑, 금실 등으로 품종을 확대해 해외 소비자들이 다양한 국산 딸기를 맛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지난 21일 꽃 사주기 운동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꽃사주기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화훼농가 지원

전북은행, 전주화훼농가연합회로부터 장미 등 300여단 구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유탉)은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지난 21일 꽃 사주기 운동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코로나 19로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고 꽃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은행은 전주시화훼농가연

합회로부터 장미, 프리지아, 국화 등 300여단의 꽃을 구매하여 사무실 환경 개선에 활용, 아름다운 꽃망울과 향기로운 꽃향기로 일상의 피로를 달래며 침체된 화훼농가 돕기에 마음을 더했다.

전북은행 임유탉 행장은 “각종 행사 취소로 판로가 어려운 상황에 꽃 사주기 운동이 활성화 돼 화훼농가에 도움

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 4일부터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은 최대 5억 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금융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신협중앙회 전문이사 선임

공제사업대표이사에 송재근

검사 · 감독이사에 민병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가 지난 25일 코로나 19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해 서면 결의로 진행된 제47차 정기대의원회에서 신용 · 공제사업대표이사와 검사 · 감독이사를 비롯해 7명의 전문이사를 선임했다.

신임 신용 · 공제사업대표이사로 송재근 前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생명보험협회 전문이사가 선출됐으며, 검사 · 감독이사로 민병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선임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신임 송재근 신용 · 공제사업대표이사는 단국대학교와 연세 대학원을 졸업하고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생명보험협회 전문이사를 역임했다. 금융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재무부,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에서 32년 간 재직하며 중소기업, 금리 및 통화, 환율, 자금시장, 서민금융, 보험업무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신임 민병진 검사 · 감독이사는 서울대학교와 쉐더버드 경영대학(Thunderbird U. MBA)을 졸업하고,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 국장, 비서실장, 일반은행국 국장, 은행감독국 국장, 기획행정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민 검사 · 감독이사는 검사 · 감독 분야의 전문가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서 30년 간 재직하며 금융감독, 검사업무, 조직운영, 건전성 감독업무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5명의 사외 전문이사도 새로 선임했다. /김윤상 기자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시동

경진원, 사업 참여 기업 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3월 3일까지 '2020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이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인 본 사업은 2019년에 16개 협업기관이 참여, 50개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229개 소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에는 도비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기업 및 성장 준비단계(50인 이하)에 있는 제조업체를 위해 산학연 협연과 경진원 직접지원의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에는 3개 세부사업 △혁신기반 공정개선 지원 △시험분석 비용 지원 △지식재산권 기술가치 평가지원을 통해, 도내 소기업의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성장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경영여건이 열악한 도내 소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 내실화와 가시적 성과 도출이라는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위해, 최근 5년 이내 본 사업을 비롯한 정부 및 지자체의

동일분야 과제에 3회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에 게시된 지원사업 공고문과 문의전화(063-711-20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

도금고 안정적 관리 총력

NH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지점장 이상우)이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예방하고 도금고의 안정적 관리와 방문고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365 자동화 코너, 출입구, 객장바다, 창구 등 사무소 전체 시설에 대해 매일 3회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전 직원 마스크착용, 전 창구 손소독제 비치, 고객 및 직원 수시 순 소속 등 코로나19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불특정 다수 방문고객을 보호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방문고객이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